

2011년 5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3,142조회)

선(善)
善

선(善)을 추구하라.
善を追求しなさい

그대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あなたが危険に直面する前に

고통이 그대를 지배하기 전에.
苦痛があなたを支配する前に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예리함을 잃기 전에.
そしてあなたの心が鋭さを失う前に

- 파드마삼바바의《티벳 사자(死者)의 서(書)》중에서 -
- パドマサンバヴァの<チベット死者の書>より -

* 삶도, 명상도
* 人生も、瞑想も

궁극의 목표는 선(善)입니다.
究極の目標は善です

'착할' 선(善), '좋은' 선(善)을 좇아가는 것이며,
'善良な' 善、'よい' 善にしたがっていくことであり

그 첫걸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その一歩は、一番近い人に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愛をわけることです。

시간이 멈추기 전에.
時間が止まる前に

처:-하다 [處一]

- 1. [자동사·여 불규칙활용] 処する。
- 2. [자동사·여 불규칙활용] 直面する; ある状態に置かれる; 身を置く。

예:리 [銳利]

- 1. [명사·하다형 형용사] 銳利。
- 2. [명사·하다형 형용사] 刃物などが鋭くよく切れるさま。

착-하다

-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善良だ; おとなしい

좇아-가다

- 1. [타동사] ついて行く。
- 2. [타동사] 従う。

<http://ja.wikipedia.org/wiki/%E3%83%91%E3%83%89%E3%83%9E%E3%82%B5%E3%83%B3%E3%83%90%E3%83%B4%E3%82%A1>

2011년 5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1,631조회)

아직도 그 처녀를 업고 계십니까?
まだ、その少女をおぶっているのですか？

어느 산중에 기거하는 두 스님이
ある山の中で生活している二人のお坊さんが

길을 가다가 다리가 없는 개울을 만났다.
道を行くと、橋のない小川に出会った

그런데 개울가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처녀가 있었다.
しかし、小川のほとりに立って、地団駄を踏んでいる少女がいた

그중 한 스님이 그 처녀를 업어 건너편에 내려주었다.
二人のうちの一のお坊さんが、その少女を背負って対岸におろしてあげた

개울을 건너 두 스님이 다시 갈 길을 재촉하는데
小川を渡った二人のお坊さんが、また先を急いだが

갑자기 한 스님이 힐난을 했다. “그대는 수행자가 돼서
突然ひとりのお坊さんがとがめていった”君は修行者になって

어찌하여 처녀를 업어줄 수가 있습니까?”
どんな理由で、少女をおぶっ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のか？”

그러자 다른 선사가 답했다.
すると、もうひとりの禪師が答えた

“스님, 저는 이미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お坊さま、私はすでにその少女を下ろしてあげたのに

스님께서는 아직도 업고 계십니까!”
お坊様はまだ背負っていらっしゃるのですか！”

- 김의정의《마음에서 부는 바람》중에서 -
- キム・ウィジョンの〈心で呼ぶ風〉より -

* 사람은 누구나
* 人は誰も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自分の観点から世の中を見ます

그런데 그 '자기 관점'이 진실을 놓치면
しかしその'自分の観点'が眞実を失えば

시선이 왜곡돼 '헛것'을 보고 헛것을 말하게 됩니다.
視線がまがって'無駄なこと'をみて、無駄なことを言うようになります

진실을 진실로, 선의를 선의로 보지 못하고
眞実を眞実で、善意を善意で見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

도리어 흠잡고 흠보고 욕까지 합니다.
むしろ欠点を暴いて、陰口をたたいて、辱めたりまでします

'진실을 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眞実を見る目'を育ててください

그것도 엄청난 훈련입니다.
それも、とてつもない訓練です

처:녀 [處女]

1. [명사] 処女。
2. [명사] 未婚の女子; 娘。

업다

1. [타동사] 負う; おんぶする; おぶう; 背負う。
2. [타동사] 背景にする; 後ろ盾にする。

기거 [起居]

1. [명사·하다형 자동사] 起居; (一定の所で)ふだんの生活をすること。

개울

1. [명사] 谷川; 小川; せせらぎ; 小さな流れ。

개울-가

1. [명사] 小川のほとり。

동동2

1. [부사] 地団太を踏むさま:とんとん。

구:르다2

1.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踏み鳴らす。

길을 재촉하다

1. [관용구] 速く行く; 速く行くように急ぐ。

힐난 [詰難]

1. [명사·하다형 타동사] 詰難; なじりとがめること; 難詰。

선사 [禪師]

1. [명사] 『불교』禪師。
2. [명사] 「僧」の尊敬語。

놓치다

1. [타동사] 落とす。
2. [타동사] 逃す; 失う; なくす; 逸する; はぐれる。

헛-것

1. [명사] 徒事; むだ事; 無益なこと; 役に立たないこと。
2. [명사] ⇒ 허깨비

선:의 [善意]

1. [명사] 善意。
2. [명사] よい心; 善良な心。

흠:-잡다 [欠一]

1. [타동사] 欠点をあばく; けちをつける; あらを捜す。

흠

1. [명사] 傷跡。
2. [명사] 欠点; あら。

욕 [辱]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욕설の縮約形。
2. [명사] 치욕(恥辱)の縮約形。

도리어

1. [부사] むしろ; かえって; 反対に; 逆に。

2011년 6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1,774조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痛いなら痛いと言ってください

어려우면 어렵다,
難しければ難し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때
痛いなら痛いと言う時

해결방법과 처방전이 나온다.
解決方法と処方箋が出る

어려우면서도 안 어려운 척, 아프면서도
難しくても難しくないふり、痛くても

안 아픈 척하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痛くないふりをすれば、助けてくれる人は誰もいない

어설픈 자존심과 내성적인 생각은
生半可なプライドと内省的思考は

자신만 더욱 어렵게 만들 뿐
自分だけさらに難しくするだけ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何も助けにならない

- 한창희의《생각 바꾸기》중에서 -
- ハン・チャンヒの<考えを変える>より -

* '나는 가수다'가
* '私は歌手だ'가

장안을 울리고 있습니다.
都下に響き渡っています

임재범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イム・ジエボムの涙が私の涙になって

옥주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オク・ジュヒョンの痛みが私の痛みになっています

너무도 오랫동안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とても長い間痛くても、痛いということができず

숨 죽이며 삼키다가 노래로 승화되어 터져나오니
息を潜めながら涙をのんで歌で昇華されてでたら

만인이 함께 울고 웃으며 젖어드는 것입니다.
万人がともに泣いて、笑って、ぬれるでしょう

당신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あなたも痛いなら痛いと言ってください

노래로! 춤으로! 사랑으로!
歌で! 踊りで! 愛で!

척3

1. [부사] 態度; ふり。

어: 설프다

1. [형용사] 粗雑だ; 不手際だ。

2. [형용사] 生半可だ; 浅はかだ; 徹底しない。

명성이 장안에 진동하다. → 진:동

名聲が都下に知れわたる。

눈물을 삼키다

1. [관용구] 涙をのむ; 悲しさやくやしさを精一杯こらえる。

승화 [昇華]

1. [명사·하다형 자동사] 昇華。

2. [명사·하다형 자동사] 固体が液体にならないで, 直接気体になること。

터:지다

1. [자동사] 起こる; 勃発する; 突発する。

2. [자동사] 裂ける; 割れる; ひび가이; ひび割れる。

젖다2

1. [자동사] 濡れる; 湿る。

2. [자동사] 浸る; 染まる。

2011년 6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6,588조회)

비노바 바베
ヴィノバ・バーヴェ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보며
“あなたの愛と信頼にふれて

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私の目には喜びの涙が流れています。

나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私はこのような愛と信頼を受けるだけの資格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あるようでもあり、無いようでもあります

그러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しかし我々に向けたあなたの愛と信頼が

당신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리라는 것은
あなたに無限の有益になるであろうことは

분명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섬김의
間違いないです。あなたは偉大な奉仕の

도구가 될 것입니다.”
道具になるでしょう”

- 비노바 바베의《사랑의 힘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중에서 - ヴィノバ・バーヴェの〈愛の力が世の中を支配するだろう〉より -

* '위대한 섬김의 도구'
* '偉大な奉仕の道具'

간디가 비노바 바베에게 한 찬사의 말입니다.
ガンジーがヴィノバ・バーヴェに言った賛辞の言葉です

비노바 바베는 간디의 제자로 '부단운동'을 통해
ヴィノバ・バーヴェはガンジーの弟子で'不断運動'を通じ

인도 부자들로부터 500만 에이커의 땅을 헌납받아
インドの資産家たちから500万エーカーの土地の献納を受け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준 '사랑 공동체'의 상징 인물입니다.
貧しい人にかえした'愛の共同体'の象徴人物です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人に仕えることより美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

물질뿐만이 아닌 마음으로, 삶으로, 타인을
物質だけではない心で、人生で、他人に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仕える道具にな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こそ

진정 '위대한 섬김의 도구'입니다.
本当の'偉大な奉仕の道具'です

유:익 [有益]

1. [명사·하다형 형용사] 有益; 利益があること; 有用であること; 為になること。

-리라

1. [어미] 母音で終わる語幹や尊敬の意味を表わす-시-に付く終結語尾。子音で終わる語幹には媒介母音으를添える。推測や意志

섬기다

1. [타동사] 仕える。

제:자 [弟子]

1. [명사] 弟子; 教え子。

부단 [不斷]

1. [명사·하다형 형용사] 不斷; ものごとが絶え間なく続くこと。

운동 [運動]

1. [명사·하다형 자동사] 運動。

2. [명사·하다형 자동사] 物体が時間の経過につれて位置を変えること。

헌:납 [獻納]

1. [SUP]1[/SUP·명사·하다형 타동사] 獻納; (神仏·国家·貴人などに)金品をたてまつること。

돌려-주다

1. [타동사] 返す。

2. [타동사] 融通してやる; 都合してやる

비노바 바베(Vinoba Bhave)

2011년 6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3,547조회)

'나'와 만나는 벼락같은 황홀함
'私'と会う雷のような恍惚感

살다 보면
生きてみれば

어제와 다른없던
昨日と変わらない

오늘의 풍경 속에서 문득,
今日の風景の中でふと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全てのことが新しく近づく瞬間があります

그 중에서도 진짜 자기와 만나는 경험이 선사하는
その中でも本当の自分と出会う経験が贈り物の

벼락같은 황홀함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雷のような恍惚感をくらぶべきありません

- 정혜신·이명수의《홀가분》중에서 -
- チョン・ヘジン、イ・ミョン스의〈心地よさ〉より -

* 일상에 젖다 보면
* 日常に染まってみれば

나를 모르고, 나를 잊고 삽니다.
私を忘れて、私をなくして生きます

내가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私が果たしてどこから来て、どこに向かっていくのか

방향도 목표도 잃은 채 떠밀리듯 살아갑니다.
方向も、目標も、失ってまま押されるように生きていきます

그러다가 문득,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진짜 나'를 만나면
しかし、ふとある特別な縁で'本当の私'に出会え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황홀해집니다.
全てのことが新しく、全てのことが恍惚になっていきます

그야말로 '벼락같은 황홀경'입니다.
それでこそ雷のような恍惚郷です

インスタント・カメラで撮った写真をプレゼントした → インスタント・カメ

ラ
인스턴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선사하였다.
ひを見ない

1. 비할 데 없다. 유례가 없다.

홀가분-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軽い; 気楽でさわやかだ; 快い。

20110603.txt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軽快だ; 簡単である。
떠-밀리다

1. [자동사] 떠밀다の受動。

2. [자동사] 押される。

11년 6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558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성일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ソンイル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넓어진다는 것
広がること

“사람이 살아가면서
”人が生きていながら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거 같아.
必ず上に高くなることだけが、正解ではないようだ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横に広がることもできるじゃないか。まるで海のように

넌 지금 여행을 통해 옆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야.
君は今旅行を通じて横に広がっているんだ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たくさんの経験をして、新しいことを見てそして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걱정마,
一人で時間を過ごすから。あんまり心配するな

네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君がここで、時間を過ごす間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높아졌다면,
他人が、君より高くなっても

넌 그들보다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君は、彼らよりさらに広がっているから!”

- 김동영의《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거야》중에서 -
- キム・ドンヨン の〈君も 発てば私をわかるだろう〉より -

*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 前だけ見て走っていく我々の人生で

가끔 지치고 쓰러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たまにくたびれて倒れるときが必ずあります。

그 순간을 실패나 좌절, 또는 낙오의 시간이라는
その瞬間を失敗や、挫折、または落伍の時間という

생각보다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考えより、ちょっとさらに広がっている時間と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떨까요!
考えて生きることはどうでしょうか!

20110604.txt

큰 강, 큰 바다처럼...
大きな川、大きな海のように...